휴대전화기 제조업체 맥슨 텔레콤의 홍성필(洪晟弼・41) 총괄부사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. 홍 부사장은 해외 거래처 사람들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자주 보낸다. 편지 내용도 비지니스와 사적인 것을 섞어서 진솔하다.

그의 편지를 받은 바이어들은 만날 때 “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당신이 처음”이라며 그를 반긴다.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. 반드시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가 최근 시장을 개척한 태국의 경우 맥슨 휴대전화기가 월 5만대나 팔리고 있다.

※편지를 - 本ｐ14では편지となっていますが、音声は［편지를］となっていますので、ここでは편지를といたしました。